아프다고 집착만 하지 말고 죽는다 산다를 좀 떠나보세요

☞ 19면에서 계속

또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줘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몰라요, 귀한 거를 모르고. 얼마나 어려웁게 돈을 벌어서 사는지 그 자체를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 사는 거죠. 그러면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도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불이 들어오게, 항상 같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한방에서 같이 사는 식구인데 착이라고 할 건 없지만 어찌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사랑을 하려면 '너의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니거늘 어찌 너한테는 불이 안 켜지랴. 다 한마음으로서, 밝은 마음으로서 대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바로 너뿐이 아니냐.' 하고 자꾸 관해 준다면 나갔던 놈도 그냥 기를 쓰고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주인공, 주인공 이름만 찾고서 "아휴! 나갔던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아팠던 사람도 이렇게 잘 낫질 않습니다." 이러거든. 그래 "내가 의사냐?" 하하하. "내가 의사라서 그렇게 고쳐 주냐? 너한테 너 자체의 한마음이 천차만별로 화해서, 마음이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찌 의사는 안 되겠느냐? 아프면 의사가 돼 주고, 명이 짧으면 칠성이 돼 주고, 또는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이 돼 주고, 가난하고 일이 생기면 관세음이 돼 주고, 물에서 사는 사람은 용신이 돼 주고, 조왕이 돼 주고, 지신이 돼 주고 다 그렇게 천차만별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돼 주는데 뭐가, 뭐가 잘못됐느냐? 네가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니까 너 알아서 해. 내가 만약에 할 줄 알아서 내가 해 줬다 하면 너는 아주 구할 길이 없어." 이렇게 해 나가고 이렇게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허, 나도 애로가 없다고는 못 보나 때로는 이럽니다. '에이, 그냥 그럭하는 거, 그냥 자기 탓인데, 뭐, 과거로부터 자기가 지어서 자기 탓으로 온 건데 그렇게 복잡한 거를 나한테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 그, 다 알아서 해.' 이러고는 팽개쳐 버리려도, 그렇게 마음이 울적했다가도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럽니다. '나 같은 사람 뭘 보고서 왔겠는가? 나의 고깃덩어리를 보고 오지는 않았을 텐데. 잘났든 못났든 그 마음이 아리따웁지 못하다면, 그리고 같이 한마음이 돼 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랑보다도 자비가 없다면 내가 될 수 없고, 내 아픔이 될 수 없고, 내 도량이 될 수 없고, 바로 더불어 같이 살 수 없으니 어찌 내가 아니랴!'

한 사람을 건지려면 과거로 수백 번 돌아가고 수천 번 돌아갔다 오고, 이렇게 마음이 이런 짓을 해야만이 그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지어 가지고 현실에 모두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짐승으로 돼 있다거나 사람으로 돼 있다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또 몇 집을 걸러야 되겠죠? 여러분은 알지 못하니까 '아,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됐나.' 하고 괴로워하시겠지만 괴로워할 것도 없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느 때든 내가 시원찮게 얘길 하더라도, 용어가 잘 되지 못해서 시원찮게 얘기를 하더라도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배운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서 지혜롭게 들으세요. 그래서 아주 마음 깊이 지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목적을 두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질문자1(남) 큰스님, 큰스님의 크나큰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큰스님의 자비하신 말씀에 언제나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다시 큰스님의 자비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질문을 올리게 됨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왜 죽어가는 이 육신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지요?

큰스님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콩 씨를 믿고 콩 싹은, 예를 들어서 댁의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이 전체 살고 있는데 댁은 그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관리인이며, 즉 말하자면 집합소밖에는 될 수 없죠. 그런데 항상 내가 산다고 하니까 거기서 돌봐 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음이 돼야 이게 작용을 해 줄 텐데 한마음이 돼 주지 않는다면 대뇌로 통신이 되질 않아요. 대뇌에 통신이 돼야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집착만 하지 마시고 전체 주인공에, 말하자면 전체 주인공의 일이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댁의 몸뚱이 한 덩어리에 생명체들이 헤아릴 수 없이 산다면 한 덩어리가 한마음으로 살고 있는 어떤 한 개체지 혼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좀 마음을 넉넉히 써서 '네가 끌고 가는 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좀 맡겨 봐요. 그리고 죽는다 산다를 떠나 봐요, 좀. 네?

죽이든지 살리든지 제가 끌고 가는 거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제삼자인 내가 그렇게 애씁니까? 아, 생각해 봐요, 글쎄. 자기가 형성시켜서 자기가 끌고 가는 집이 헐어졌으면 집주인이 고쳐야지, 왜 집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네? 이 집이 헐어졌으면 이 집 지은 사람이 고쳐야지, 왜 이 집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안 그래요?

질문자1(남) 그런데 왜 사람들끼리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며 타인을 헐뜯어야 하는지요. 이것도 이때까지 지내온 습과 인연의 소치인지요.

큰스님 뭐라고 그랬는지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내가. 하하하

질문자(남) 왜 사람들끼리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며 타인을 헐뜯어야 하는지요? 이것도 이때까지 지내온 습과 인연의 소치인지요?

큰스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세상도 벌어졌고 상대성도 생겼고, 종교도 생겼고 가정도 생겼고 자식도 생겼고 그런 건데,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잘하든 못하든 남의 탓으로 돌리니깐 그렇죠. 기껏 투자를 해 놓고 그게 잘못되면 그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냥 가게도 기껏 얻어서 그게 잘못되면 네가 잘못해서 그랬느니 마느니 하고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이게 뭣들입니까? 이게 부처가 될 수 있는, 99%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의 탓을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입니다, 이거는. 그건 내 탓입니다, 다 각자. 아내가 잘못해도 그렇고 남편이 잘못해도 그렇고, 또 자식이 잘못해도 그렇고, 내 탓으로 돌려야 그 무질서한 업이 다 그냥 지워집니다, 싹 쳐 그냥. 그런데 그렇질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하고 네가 벌었느니 내가 벌었느니 하고, 네 돈이니 내 돈이니 하고, 내가 했지 네가 했니 하고 이러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제일 등 가는 인간이 되어서, 제일 등 가는 부처로서, 제일 등 가는 에너지를 자유스럽게 펼쳐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도량이 돼야죠. 마음의 도량이요.

>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의 탓을 해선 안 됩니다, 절대로.
> 자식이 잘못해도 그렇고 아내가, 남편이 잘못해도 그렇고
> 모두 내 탓으로 돌려야
> 그 무질서한 업이 그냥 싹 다 지워집니다.

질문자1(남)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과 고통이 무엇인지 큰스님의 자비하신 법문을 재차 상세하게 듣고자 합니다.

큰스님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은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고통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있으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욕망이 있고 착이 있고 욕심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지 만약에 내 생명까지도 다 팽개쳤다면 아무것도 붙을 게 없어요. 이 하늘이 지금 당장 무너져서 그냥 납작해진다 하더라도 '허허! 그래?' 이러고 웃을 거예요, 아마. '그래.' 그러고 웃게끔 될 수 있어야 그거를 (손바닥으로 허공을 받쳐 보이시며) 떠받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진정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루속히 그저 콩 싹이 콩씨를 알아서 영원토록 그 콩씨로 인해서 모두 먹고 콩씨가 되남고, 또 먹고 되남아도 영원하리라고, 끝 간 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느냐 그것이 제일 걱정이죠, 뭐. 그냥은요, 여러분이 걱정이 있다고 그러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뭔 걱정이 있을까? 지금 당장 그냥 밥을 굶는다 해도 '허어, 밥 굶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알아서 해.' 그러고 달랑 나자빠지란 말입니다. 하하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여) 저는 상파울루에서 진각사란 절에 다녔습니다. 전 큰스님 말씀마따나 갖다 빌고 내가 달라는 것만 알았지 제 마음공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큰스님을 알고부터는 제 마음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공부를 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스님 뵙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으로 나와 가지고 여기에 언니들도 있고 또 우리 동생도 있어서, 한마음선원이 너무너무 이 마음공부 하는 데 좋고 그러니 같이 가자고 제가 이끌고 큰스님을 한번 뵈었어요. 그런데 큰스님께서 "개같이 놀면 개로 태어나고, 사람같이 놀면은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마음 정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브라질에서 옷 장사를 하는데 제 맘대로 잘 안되고 운영이 어려워요. 그런데 아,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는 법도 틀렸고, 모든 걸 둘로 보았습니다. 제가 주인공을 믿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제가 둘로 봤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큰스님 법문을 듣고 정식으로 이 주인공을 믿기 위해서 저를 이끌고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 저는요, 마음을 내서 진짜 제 모든 사업이 잘되어 저도 물질이 따라서 지원을 꼭 내고 싶습니다. 큰스님, 마음 좀 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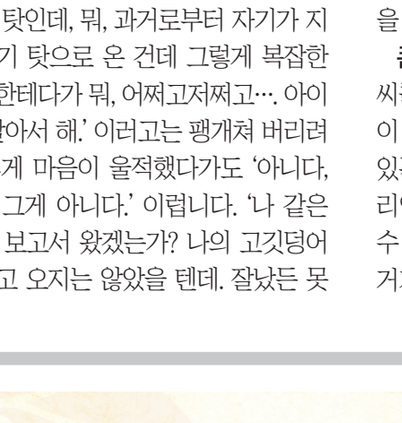
큰스님 잘해 봐요. 허허허. 댁이 잘하면 또 갈 수 있는 스님네가 생길 거고 그러니까요. 댁네가 모두 잘하지 않는다면 스님네들이 있다고 해도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댁네들이 잘하는 대로 스님네들이 생기는 거지, 허허허. 잘못하면 스님네들이 안 생기지. 그건 그릇대로 가는 거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5년 7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NEW "식물성 연꽃향 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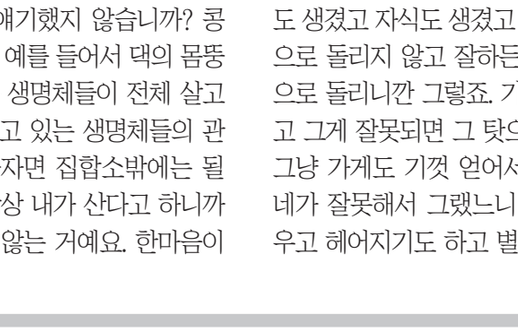
오랜 시간 완벽한 배합 비율을 연구, 개발하여
2024년 향긋한 연꽃향 양초를 출시하게 되었으며, 다년간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식물성 연꽃향 양초"를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께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또한 신제품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는 연소시 중앙부만 연소되는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전부 연소시킵니다.
연꽃향양초 샘플이 필요한신 분은 전화번호, 성함, 주소를 010-5265-5118로 문자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성 연꽃향 육각초



특 大(대) 7.5Φ×41㎝ 16개 120,000원
大(대) 8.5Φ×33㎝ 20개 140,000원

식물성 연꽃향 양초



〈원기둥〉 7.4Φ×29㎝ 20개 120,000원
〈돈타레〉 5.6Φ×26㎝ 30개 105,000원
〈밀대〉 4.7Φ×24㎝ 40개 92,000원

「해광양초는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를 제조 판매합니다.」

신제품 반야심경 디퓨져

한글로 새겨진 반야심경 디퓨져는 오랜 잔향을 남기어 일상생활 속 귀한 기운을 갖게 도와줍니다.



연꽃디퓨져
연꽃디퓨져 연꽃처럼 예쁜 향기로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선사합니다.
침향디퓨져 뇌를 깨우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여 고요한 기운을 전합니다.
침향디퓨져
100㎖ 디퓨져 29,000원
200㎖ 디퓨져 39,000원

신제품 도자기 (초)받침

*기존 촛대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양초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NAVER 해광양초 해광산업 상담문의 010-5265-5118 / 031-333-024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416-8 (이일로 112-6)